

가정상담

2004

12

통권 256호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회관 건축의 해

4 • 이 달의 메시지

5 • 특별기획 | 부부재산제 개정 ①
부부의 경제적 평등을 위한
부부재산제 개선

10 • 가정폭력상담실

13 • 칼럼 결혼과 인생 (24)

14 • 변민하는 이웃과 함께

15 • 인터넷 상담

16 • 상담소 소식

17 • 상담통계

18 • 지부한마당

19 • 지부 소식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족정책-
부부평등과 자녀·노인의 복지

있다·없다
- 다시 쓰는 가족이야기

연세대 사회학과 하자작업장학교
홍익대 디자인학과 학생 지음
안그라픽스, 2004년 발행.



‘텔레비전을 없애면 강북 가족이 해체되고 애완견을 없애면 강남 가족이 해체된다’는 말이 있다고 한다. 농담이지만 현재 한국 가족해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표현이다. 가족이기에 혈육의 정으로 서로 보살피고, 친밀감을 가지면서 화목한 시간을 보내는 가족의 모습은 이제 동화 속의 아련한 풍경처럼 보인다.

인류의 영원한 화두 ‘가족’은 우리 삶의 근원이면서 또한 명예이기도 하다. 소설, 영화, 드라마에서 ‘가족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많은 이야기가 펼쳐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족’의 위기에 대해 우려한다. 이 시대, 한국의 젊은이들은 ‘가족’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있다·없다- 다시 쓰는 가족이야기」는 연세대 사회학과, 홍익대 디자인학과 그리고 대안학교인 하자작업장학교 무려 65명 학생들의 ‘가족’을 주제로 진행된 공동수업의 결과를 엮은 책이다. 이 책은 2004년, 서울에 사는 대학생들이 보는 ‘가족’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가족’에 대한 학생들의 기발한 정의는 가족이 ‘있다’ 보다는 가족이 ‘없다’에 무게를 두고 있는 듯하다.

“가족은 이윤=0에의 균형수렴 과정이다- 들쭉날쭉 치고 받고 하다가 별수 없이 각자 포기하고 맞춰 사는 데 합의하고 말기 때 문 안타깝게도 남는 게 없다.”

“가족은 고통이다- 가족은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받기 위해 필연적으로 엮어진 존재들이다. 가장 사랑하기에 고통도 크고, 그 큰 고통을 통해 가장 큰 기쁨 또한 깨달을 수 있다.”

“가족은 국민연금제도이다-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가입된 보험이니까.”

“가족은 안정이다- 계속 쓰고 있다 보면 내가 쓰고 있다는 것조차 잊는 그런 존재. 하지만 안정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다. 살면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

“가족은 거울이다- 가족을 보면 내가 보인다. 가까이 보면 크게 보이고 멀리 보면 작게 보인다.”

학생들은 ‘가족’을 어릴 때는 포근하지만 커서는 평안하고 친밀하기보다는 불편하고 개인을 엮매는 존재로 여기며 부모님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초등학교 때는 아버지가 자랑스럽고 친하게 지내기도 했으나 청소년 이후부터는 서로 대화하는 일도 없으며 밖으로만 나도는 아버지가 낯설다. 가족들에게 가부장적인 권위를 내세우며 가족들에 화를 잘 내는 아버지, 엄마에게 폭력을 일삼는 아버지는 공포의 대상이다. 아버지와 오랜 불화 속에 있으면서도 이혼하지 않는 엄마가 답답하고, 다른 엄마와는 달리 자녀의 교육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일에만 애쓰는 엄마를 원망하기도 한다. 한편 생업으로 바쁜 부모들과 모처럼 갖는 외식자리에서는 파스한 가족의 정을 느낀다. 이들은 솔직하면서도 진지하게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시대적 삶을 살아가는 고민의 흔적이 엿보인다. 다음 세대에서 가족을 이끌어갈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의 진솔한 ‘가족’이야기는 가족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차츰 ‘가족’의 소중함을 알아 가는 과정이 희망적으로 보인다.

연세대 지도교수 조한혜정 교수는 “봉건적 대가족이 붕괴되고 부부 중심의 핵가족이 정착되어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 많은 기여를 했으나 대중소비사회로 접어들면서 여성들이 대거 공직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부부 중심의 핵가족제도가 흔들리게 되었으며 점점 심해지는 시장의 확장과 개인화는 핵가족 제도를 해체하고 더 이상 가족은 없다는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근대 가족제도의 해체는 긴 안목에서 볼 때 불가피하며 이제 보살핌의 원리가 살아있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상상하면서 논의할 때임을 강조했다.

김 동 자 도서실장

민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2004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최연희) 주최로 호주제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법안을 제출한 법무부 김현웅 법무심의관의 법안 설명에 이어 대법원, 국가편찬위원회 등 국가기관 대표자의 진술이 있었고, 호주제폐지운동 및 폐지 반대운동에 앞장서온 단체에서 각 4명의 진술인들이 차례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본소 광배희 소장은 호주제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으로는 마지막 진술인으로 나서 호주제가 21세기 가족제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가족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 등 현 가족제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호주제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시켜주기를 촉구하였다.

호주제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의 진술인들은 호주제폐지가 가족의 와해를 초래한다거나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으면 이혼때마다 혼란을 초래한다는 식의 전근대적인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여 이제 더 이상의 논쟁보다는 국회의 결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진술인 진술에 이어 법사위 의원들은 진술인들에게 공문서로서의 호적과 사문서로서의 족보의 차이, 자녀의 성 변경 문제, 신분등록제의 대안, 호주제폐지와 가족해체의 관계 등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이날 공청회에는 한나라당 대표인 박근혜 대표를 포함하여 많은 여성의원들이 참석하여 법사위 의원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였고 남성의원들도 다수 참석하여 민법개정안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 가운데 4시간 30분동안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진술한 진술인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 김현웅 법무심의관/ 대법원 권순형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국가편찬위원회 이순구 편사연구사/ 대한변호사협회 이명숙 변호사/ 정통가족제도수호법국민연합 구상진 변호사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인순 공동대표/ 한국성씨총연합회 정환담 가족법연구원장 한국가족법학회 이승우 부회장/ 성균관 최병철 교육원장/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 본소 광배희 소장

※ 본소 광배희 소장의 공청회 토론 원고는 본소 홈페이지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2004년 11월 자원봉사자

현관 안내 해 주신
강순임, 강신일, 강영봉,
고광례, 오영순, 유향자,
이상옥, 이수옥, 이옥순,
이현숙, 전덕열, 전원순,
함화영, 홍순호, 홍진범 님

전화 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고옥주, 김인숙,
김정혜, 노희자, 박남영,
박선화, 백미도, 심무순,
안현숙, 유문숙, 이승민,
임현정, 한정희, 함영익,
황인경 님

교육원을 도와주신
박요순 님

도서실 작업을 도와주신
이경실, 엄희정, 조경희, 김지현,
강미영, 김혜용, 김지희, 공선영,
박세희, 민경아, 김기혜, 김미림,
서경희 님

주간상담을 해 주신
한수자 선생님, 이동형, 이정숙,
김병주, 최은희, 김서현, 이길연,
양문식, 최승재, 광용석, 장정환,
강윤미, 이호창, 김경환, 이석준
변호사 님

야간상담을 해 주신
임주용, 심미숙, 박창규, 김형완,
한기찬 변호사 님

후원

평생회원이 되신 분
민유숙 님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남산교회, 여의도 동사무소,
김병주, 천정환, 한기찬,
방선숙, 김현자,
김진배 님

도서후원금을 주신 분
이씨희 18, 25기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2천원씩 또는 년 2만원,
평생회원은 3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미은행 101-50446-244 가정법률상담소
우리은행 085-003398-01-006

연락처 780-5688 사무국